

이승은 | 연구원 (제 7189)

- 주요 뉴스: 글로벌 각국, 관세 유예 마감일을 앞두고 미국과 무역협상 지속
 - 중국, 미국에 무역합의 이행 강조
 -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감세법안(OBBBA) 서명
 - ECB 빌레로이 위원, 유로화 강세 지속 시 인플레이션이 목표치 밑돌 위험
 - 국제금융시장: 미국 금융시장은 휴장. 유럽은 관세 유예 마감일 임박 등이 영향
 - 주가: 미국 증시는 독립기념일로 휴장
유로 Stoxx600지수는 무역협상 불확실성 등으로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무역협정 마감 기한을 앞두고 전일의 상승분을 반납하며 하락
유로화 가치는 0.18% 상승, 엔화 가치는 0.32% 상승
 - 금리: 미국 채권시장은 독립기념일로 휴장
독일은 영국 재정 우려로 급등 후 이틀 연속 진정세를 보이며 1bp 하락
- ※ 뉴욕 1M NDF 종가 1360.2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362.7원, 0.03% 상승). 한국 CDS 상승

		7/4일	7/3일	전일대비			7/4일	7/3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휴장	6,279.4	-	국제 금리 10y	미국	휴장	4.35%	-
	유럽	541.13	543.76	-0.48%		독일	2.61%	2.62%	-1bp
	중국	3,472.3	3,461.2	+0.32%		영국	4.55%	4.54%	+1bp
	일본	39,811	39,786	+0.06%	CDS 5y	한국	26bp	25bp	+1bp
	한국	3,054.3	3,116.3	-1.99%		중국	48bp	48bp	+0bp
환율	달러지수	96.99	97.18	-0.20%	위험 지표	EMBI+	-	354	-
	유로화	1.1778	1.1757	+0.18%		VIX	17.48	16.38	+6.72%
	엔화	144.47	144.93	+0.32%		WTI유	66.5	67	-0.75%
	위안화	7.1656	7.1706	+0.07%	원자재	구리	501.85	509.7	-1.54%
	원화	1,362.3	1,359.4	-0.21%		금	3,337.2	3,326.1	+0.33%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글로벌 각국, 관세 유예 마감일을 앞두고 미국과 무역협상 지속

- 상호관세의 90일 유예가 7월 9일 만료되는 가운데, 각국은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협상을 지속
- EU: 미국과 '기술적 합의'에 근접한 상태이나, 마감일 전 무역협정 체결은 의문. 관세 인상을 피하기 위해 현 상태를 연장할 가능성. 한편, EU는 대미 투자를 늘리는 대가로 관세 인하를 추진하며, 특히 자동차·철강·알루미늄에 대한 수출 할당량과 면세, 이외에는 10% 보편 관세를 요구
- 스위스: 무역협정 초안에 제약품이 미국의 국가안보조사(Section 232)에 따른 관세 면제 조항에 포함될 가능성. 다만 이는 제약품 관세 부과를 막겠다는 확정 보장(guarantee)이 아니라, 협력 약속(pledge) 형태
- 인도: 며칠 내의 무역협정 체결을 바라면서도, 자동차 관세에 대응해 미국산 일부 상품에 대한 보복 관세도 고려. 무역부장은 협상을 서두르지 않고, 자국 이익에 부합할 경우에만 체결할 것이라고 발언. 인도는 베트남, 중국 등에 비해 유리한 관세를 요구하며 농업·유제품 부문 개방은 거부
- 기타: 태국 재무장관은 미국과의 첫 장관급 상호관세 회담이 긍정적이었다고 자평. 태국은 대미 관세 인하·비관세 장벽 철폐, 원산지 규정 강화 등으로 무역적자를 연간 최대 \$150억 줄이겠다는 방침. 한편 인도네시아는 미국산 주요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거의 0%'로 인하하고 \$5억 상당 미국산 밀을 구매하겠다고 제안했으며 보잉 항공기도 추가 구매 예정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중국, 미국에 무역합의 이행을 강조

- 중국 상무부는 양국 모두 무역합의를 이행했다고 밝히며 최근 미국의 대중 수출 규제 완화에 대응하여 제한된 품목에 대한 수출 허가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 중국은 해당 합의가 매우 힘들게 얻은(hard-won) 것이라며 미국이 양자 무역 및 경제관계의 안정을 유지하라고 강력 요구
- 중국은 지난주에도 미국에 긍정적인 분위기 유지를 촉구하면서 다른 국가들에 미국과 "중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거래"를 하지 말라고 경고. 미국이 베트남 등과 맺은 무역협정이 중국에 대한 간접적 압박이 될 수 있다는 분석

■ 트럼프, 감세법안(OBBBA) 서명

- 트럼프 대통령은 독립기념일인 7.4일 백악관에서 서명식을 열고 지난 3일 상원 통과된 감세 및 지출법안에 대해 서명. 트럼프는 다양한 국민들을 지원해주는 법안이라고 강조하며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감세, 가장 큰 정부지출 축소, 가장 큰 국경안보 투자라고 평가

■ ECB 빌레로이 위원, 유로화 강세 지속 시 인플레이션이 목표치 2%를 밑돌 위험

- ECB 빌레로이 위원은 유로 환율 급등 시 디플레이션 위험을 경고하며 유로화가 10% 상승할 경우 향후 3년간 인플레이션이 매년 0.2%p씩 억제된다는 추정치를 인용. 다만, 유로화 강세 우려가 7·9월 회의에 대한 어떤 신호를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부언

■ 일본, 가계지출 3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

- 일본 5월 가계지출은 전년대비 4.7% 증가해 예상치(+1.2%)를 큰 폭 상회하고, 3년 만에 가장 빠른 증가세를 기록. 이는 자동차 관련 제품과 외식 등 일회성 요인의 지출 증가에 기인. 침체된 소비의 회복이라는 분석도 있으나, 일각에서는 향후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인한 무역긴장이 임금 인상 추진력을 떨어뜨리고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 노력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

■ 유엔, 이란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 사찰단 철수

- 유엔 국제원자력기구는 이란이 IAEA와의 협력을 중단하는 법을 제정하며 위협 하자 안전상 이유로 이란에 남아있던 마지막 핵 사찰단을 철수. 위성 감시, 정보 기관 모니터링은 계속되나, 핵 시설 현장 검증 능력은 사실상 상실. IAEA는 가능한 한 빨리 감독을 재개할 방법을 이란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 발표

■ OPEC+, 8월 증산량 전월대비 확대 가능성

- 로이터는 관계자들을 인용해 OPEC+가 오늘 회의에서 지난 5,6,7월 증산했던 일일 41.1만 배럴 규모보다 더 큰 규모의 증산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

주요 경제 지표

■ 다음주 주요 경제 이벤트(현지시각 기준)

- 미국 관세 유예 종료(9일), FOMC 의사록(9일), 한은 금통위 회의(10일)

금융시장 주요 지표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237, E-mail selee@kcif.or.kr